



안전먹거리 지킴이...유기농 명인을 만나다 (13)영암 유기농원 '고효숙 명인'

팔 곳 걱정되는 낡은 유기농 정책... 새로운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 앞장

"안전먹거리를 위해 유기농을 시작한 지 30여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그에 맞는 유기농 정책이 함께 가야 더 발전된 친환경 농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참나무 톱밥 활용 토양 관리...목초액·감식초 등 해충 방제 발효식품 공부 위해 석사 학위 취득...농업 체험·관광상품도



명인이 만든 감식초, 감백초 등 발효식품(왼쪽), 유기농원을 운영하는 정동열 농원장과 고효숙 유기농 명인.



영암군 신북면 원행정길에서 '유기농원'을 운영하는 고효숙(74·여)명인과 그의 반려자 정동열(84)농원장. 명인의 유기농업 시작은 지난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퇴직 후 그는 노후생활을 서울에서 하기 위해 광주에 있던 집까지 팔고 상경했다. 그렇게 10여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낸 뒤 어느 날 명인은 시장에서 과채를 구매해 먹을 때마다 역겨운 냄새를 느꼈다. 당근과 오이까지 모든 농산물에서 그 같은 냄새에 고생했으며 특히 포도를

먹을 때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겨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였다. 평소 먹는 게 즐거워야 일이 즐겁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명인은 몇 년간의 고민 끝에 고향 근처인 영암에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키워 먹겠다는 결심으로 지난 1990년에 이곳에 터를 잡았다.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한 당시 저농약부터 시작해 무농약까지 전환기를 거쳐 2006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초창기에는 농업에 대한 큰 지식은 없었지만, 토양개량이 먼저라 생각한 명인은 참나무 톱밥과 계분을 활용한 미생물 호기성 발효퇴비를 투입해 땅을 관리했다. 병해충관리는 은행 등의 추출액으로 기피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농장에서 직접 만든 감식초를 사용한다. 수십 년간 이 같은 친환경 농법을 지속 유지해 온 결과 지난 2012년에는 단감 재배기술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전

남도 유기농 명인' 제16호로 지정됐다. 현재는 3만3천57.85㎡(1만여평)에서 단감, 대봉, 꾸지뽕, 석류, 쌀 등을 모두 유기재배하고 있다. 또한, 명인은 식품공학 석사학위까지 받은 만학도다. 그는 유기농을 받은 뒤부터 감식초, 감백초 등 발효식품을 가공해 판매해 오다 더 올바르게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늦은 나이지만 미생물을 배우기 위해 대학원에 들어가 지난 2017년도에 학위를 받았다. 이 외에도 명인은 친환경농산물 홍보

를 위한 유기농업 체험·관광상품화에 도 관심이 높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농원에서 숙박하며 유기농업을 체험하는 우프팜 등을 운영하며 지난 2008년 프랑스인들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등 수백 명의 사람들이 유기농업을 경험했다. 앞으로 명인의 계획은 유기농업의 1세대 선배로서 많은 후배 농부들이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고효숙 명인은 "1990년대 후반 친환경 농업 육성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한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다"며 "아직도 농산물 공판장에 유기농산물 코너 하나 제대로 없어 많은 유기농업인들이 판로를 걱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로가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기농업 선배로서 같이 하자고 주변에 장려할 수가 없고 앞으로 기후 문제와 환경을 바라볼 때 친환경은 필수"라며 "이러한 친환경 농업이 지속 확장될 수 있도록 이제는 유기농산물 코너 등 정부의 유기농 정책이 뒷받침돼야 많은 농가가 참여할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태호기자

"마늘·양파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남도는 6일 "마늘·양파 농작물 재해보험을 품목별 신청 기한에 맞춰 서둘러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폭설, 냉해, 집중호우, 저온, 우박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등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남도, 대서 등 남지형 마늘은 8일, 한지형 마늘은 20일, 양파는 22일 까지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에선 지난해 마늘과 양파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올해 상반기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에 따른 마늘 2차 생장과 양파 생육불량 등 피해를 입어 4천577농가에서 288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농가 부담은 낮추고 보험 가입률은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12%p 높은 64%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식용곤충 '갈색거저리' 대량사육 개발 시동

도농기원, 스마트 자동화 사육시스템 생산성 향상 기대

전남도농업기술원은 6일 "국내에서 소비 수요가 가장 많은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의 자동화 사육시설을 구축하고 대량사육 기술 개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곤충산업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농으로 운영되고 있어 노동집약적 생산방식과 높은 인건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각 농가에서 생산된 곤충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은 곤충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곤충 스마트 대량 사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추진, 갈색거저리 자동화 사육시

설을 구축했다. 사육시설은 사용자 적재형 반자동 사육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번에 최대 1천200개의 사육상자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8t의 갈색거저리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설계됐다. 특히 반자동 먹이-수분 공급장치와 자동 온도·습도 제어시스템, 유충 선별기, 색채 선별기, 자동세척기 등 첨단 장비들이 설치돼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야채 대신 젤 형태의 수분 공급 방식과 펠렛형 사료 개발 연구를 통해 사육 과정에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재정기자



전남농협, 다문화가족 한국 전통문화 체험

농협중앙회 전남농협분부는 6일 "지난 4일 전주에서 농촌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역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현장교육은 한국 전통문화의 대표 명소인 전주에서 한국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고 한복을 입으며 예절교육 등 우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탁 전남농협본부장은 "다문화



가족은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남농협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동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티구립 형성

소비가자 W 1,18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중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티구립,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가자 W 1,38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로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 티구립

소비가자 W 80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성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